소나무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신음

광주·전남 105만 그루 고사 위기

간벌 예산 부족 … 방제 속수무책

최근 광주·전남지역 야산에서 리기다소나무를 고사시키는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 피해가 확산되면서 관계기관이 대응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 말 현재 시·도 산림 전체면적 71만5천879ha 중 700ha에서 '가지 마름병'이 발생, 이 일대 리기다 소나무(소나뭇과의 상록 침엽 교목) 105만 그루가 고사위기에 처했다.

발생지역은 광주시 북구를 비롯 화순·여수·고흥·해남 등 인근 야산 등지이며 시·도는 올해 피해면적 700ha 중 71.4%인 500ha에 대해 위생간벌작업을 했다. 지난해에도 시·도내 야산 840ha에서 '가지 마름병'이 발생, 이 중 55.9%인 470ha의 리기다 소나무를 잘라냈다. 리기다소나무는 1ha당 1천500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이 중 30%인 450그루에 대해 위생간벌작업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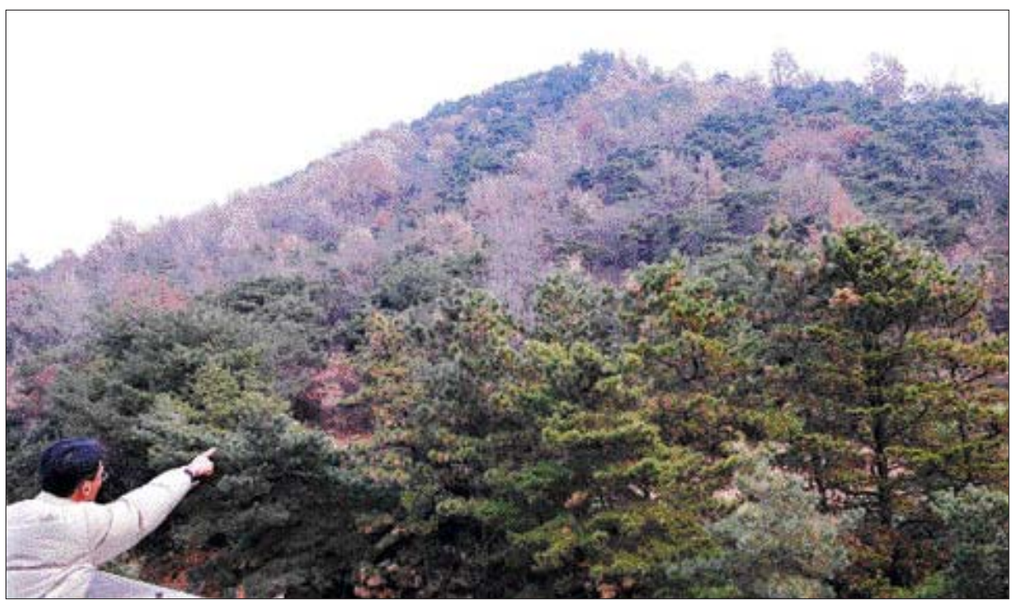
'가지 마름병'이 해마다 추가 발생하는 등 시·도 전역으로 퍼지고 있으나 해당 자치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적절한 방제대책을 찾지 못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 병의 경우 간벌 외에는 별다른 치료법이 없다는 게 시·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북구는 이에 따라 3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면적 100ha 중 43ha(43%)에 대해 간벌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피해면적이 100ha에 달했으나 손조차 대지 못했다.

광주시 산림과 관계자는 "리기다 소나무가 30여 년을 넘다 보니 수세(樹勢)가 약화되고 생육공간 악화로 최근 들어 소나무에 감염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감염된 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경제성 있는 잣이나 자작, 상수리나무 등으로 교체해야 하나 예산이 부족해 적절한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병원균은 'Fusarium circinatum'이고 침입 경로는 바람, 매개충의 식해(食害) 등에 인한 상처로 감염되며 포자로 전파한다. 감염목은 가지·줄기 등 감염 부위에서 송진이 흘러내리면서 고사한다.

특히 활력도(건강성)가 떨어진 소나무류 숲에서 잘 발생한다. 농약으로 방제가 불가능해 병든 가지와 줄기는 소각하고 수종갱신 또는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숲을 회복할 수 있다.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저수지 인근 군왕봉. '푸사리움 가지 마름병'에 걸린 리기다소나무 잎과 줄기가 진한 적갈색으로 변하면서 말라 죽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바람'

광주시, 디자인위원회 구성 … 사전 심의·자문 의무화

광주시내 공공시설물에 '디자인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 8월 광주시가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디자인위원회'를 구성, 시와 시산하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을 제작·설치할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받도록 하면서다.

현재까지 디자인 심의와 자문을 받은 공공시설물은 17건. 대한주택공사가 추진 중인 효천2지구와 진월지구, 광주시가 맡고 있는 증심사천과 풍영정천 개수공사, 시청앞 미관광장 숲조성 등이 디자인 심의 및 자문을 거쳐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 디자인으로 거듭나고 있다.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탈바꿈한 효천2지구 보도 육교의 야경 디자인.

17건 디자인 바꿔

우선 주공의 경우 효천2지구의 교량 3개와 생태이동통로 1개, 보도육교 1개 등의 디자인 심의를 상정했다. 하지만 공공디자인위원회는 교량이나 보도 육교 등의 디자인이 주거지역에 걸맞지 않게 과도하고, 특별한 컨셉도 없다며 '재자문' 의결했다.

대한주택공사는 이에 따라 디자인 전문가에게 이들 시설물의 디자인 개발을 다시 맡겼다. 재개발된 안은 교량의 경우 기존 교량의 육중함을 줄이고 볼륨감과 리듬감을 살렸으며 난간도 심플하면서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고쳤다. 보도육교는 기존안의 외부로 돌출한 계단을 내부 계단화하여 구조물을 세련되고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바꿨다. 특히, 야간경관도 계획하여 난간의 외측면, 교명주, 교각부위에 LED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랜드마크 역할도 부여했으며, 보행시 조도확보를 위해 하부레일에 조명을 설치했다.

효천2지구는 남구 노대동 일원에 조성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로 내년 2월 착공해 2010년 준공 예정이다.

증심사천 개수공사는 무등산 진입부 증심사천 일원의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6개의 교량를 개·보수하는 사업이다.

이곳도 당초에는 교량상부에 큰 스케일의 조형물을 얹고 원색의 색깔을 사용한 디자인 안이 제출되었으나 무등산 자연경관에 더 어울리는 본래 있던 석교 형식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랜드마크 역할 부여

또한 석교난간을 새로이 제작하는 경우 현재의 자연스러운 멋과 예스러움을 살릴 수 없다는 의견에 따라 기존교량 철거시 난간의 파손을 최소화하여 기존 석교 난간을 재사용키로 했다.

광주만의 아름다움

이 외 진월지구 난간은 너무 평이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미된 디자인으로 교체하도록 했고, 풍영정천은 조형물에 의한 과도한 디자인을 배제하고 교량자체의 형태와 구조미를 살릴 수 있도록 교각진입부를 처리하고 난간플랫바(flatbar)의 방향과 각도를 이용하여 구조미를 연출하도록 했다.

장상근 광주시 건축주택과장은 "그동안 광주는 시민들의 기대에 비해 도시공공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이 다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건축설계비에 디자인 비용을 꼭 넣도록 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 진흥 방안을 마련해 광주만의 아름다움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사랑의 무상 집 수리 올 목표 초과 31가구

광주시는 올해 한 해 관내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한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을 통해 31가구의 집을 무상으로 수리해줬다고 16일 밝혔다.

'사랑의 집 수리' 사업은 시가 민간 건설업체의 후원을 받아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등이 살고 있는 노후·불량 주택을 수리해 주는 것으로, 사업 첫 해인 2003년 3가구였던 수혜 가구 수가 올해는 31가구로 크게 늘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을 후원한 16개 건설업체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올해는 애초 무상 수리목표인 20가구를 초과 달성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축 방역 업무 평가 광주시, 전국 최우수

광주시가 가축 방역 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추진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16일 농림부가 주관한 '2007 가축방역 업무추진 전국 평가'에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해 기관 표창과 시상금 1천만 원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농림부의 가축방역 업무추진 평가는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 추진 사항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운영실적 및 소독실태 점검 사항 등 가축 방역 사업과 관련된 18개 시책 60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다.

시는 이 가운데 특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추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북구 행정 혁신 올 40여개 賞 휩쓸어

광주시 북구가 올해 40여 차례의 수상실적을 올리는 등 행정 혁신을 통해 지난해보다 10억700만원 늘어난 38억2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국 기초 지자체 가운데 5위, 광주·전남에선 1위 규모다.

북구는 지난 1년 동안 ▲공공혁신 전국대회 최우수상 ▲행정정보 고도화사업 국무총리상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최우수구 등의 전국 단위 수상 실적과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마을 공동체 시범사업 최우수구 등의 광주시 단위 수상 실적을 거뒀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47만 북구민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지자체 우수 혁신과제 광주시 서구 3개 포함

광주시 서구는 "행자부가 지난 14일 올 한해 전국 지자체 246곳에서 추진한 혁신과제 중 우수사례 74개를 선정했는데 서구의 혁신과제가 3개나 포함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서구의 혁신과제는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주민참여예산제, 이웃사랑 통합연계 시스템 등 3가지다. /안현주기자 ahj@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담

●당직변호사(17일)	
양경호	224-3322
●법무사회 법률상담(17일)	
심현섭	370-0600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성폭력상담소	671-4050
광주 YW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W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고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광주경찰청	222-0112
전남경찰청	366-0112
광주지검	233-2828
●사이버테러	(02)118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여기동수사대 (광주)	229-0118
(전남)	367-011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1391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1389